인사이트

웨이스는 VEXPLOR가 공장 일을 얼마나 맡았는지를 발표가 아니라 운전 로그로 판정합니다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1월 28일

웨이스는 VEXPLOR가 공장에서 어느 단계까지 일을 맡고 있는지를 회사의 발표나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운전 로그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설정한 권한과 현장의 실제 운영 등급을 처음부터 따로 적습니다. 권한을 높게 설정해 두어도 현장에서 사람이 AI의 결과를 매번 다시 손본다면, 그 공장이 AI에게 맡긴 일은 설정값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가 이 둘을 나누는 데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도입의 성과는 발표 자료에서 가장 크게 보이고, 현장 기록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웨이스가 AI의 권한과 현장 등급을 어떻게 나눠 적는지, AI의 제안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웨이스는 VEXPLOR가 공장 일을 얼마나 맡았는지를 발표가 아니라 운전 로그로 판정합니다

01

웨이스는 AI에게 준 권한과 현장이 실제로 운영되는 등급을 따로 적습니다

VEXPLOR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AI에게 어디까지 맡길지를 정한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이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운영되는지 보여 주는 등급입니다.

구분	무엇인가	무엇으로 정하나
AI 권한(L0~L4)	AI에게 설정한 제어 권한	제품 설정값
운영 등급(A0~A5)	현장이 실제로 운영되는 등급	운전 로그

둘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준을 나눕니다. AI 권한은 설정값이라 현장 기록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담당자가 AI의 제안을 매번 고쳐서 쓰거나 끝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 공장의 실제 운영 등급은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스는 「AI가 이 공장에서 무엇을 맡고 있다」고 말할 때 설정값이 아니라 운전 로그를 근거로 삼습니다. 설정은 의도를 담고, 로그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담습니다.

02

AI의 제안은 업무 기록을 바로 바꾸지 않고 승인을 기다리는 한 줄로 남습니다

VEXPLOR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권한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	AI가 하는 일	사람의 자리
L0	조회	직접 판단
L1	제안	제안을 보고 판단
L2	승인 후 실행	승인해야 실행
L3	정책 범위 안 자동	범위를 정함

L4 긴급 대응은 위 단계와 따로 두는 기능입니다.

AI가 무언가를 바꾸자고 제안해도 VEXPLOR는 그 자리에서 업무 기록을 고치지 않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제안 한 줄만 만들고, 사람이 승인해야 실행됩니다. 지금은 판단마다 사람이 승인합니다.

이 순서는 기록이 남는 방식 때문에 중요합니다. AI가 업무 기록을 바로 고치면 나중에 그 값이 AI의

판단이었는지 사람의 판단이었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제안과 승인이 따로 남으면 사람이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떤 제안을 그대로 두었는지가 기록으로 보입니다.



AI의 제안은 업무 기록을 바로 바꾸지 않고 승인을 기다리는 한 줄로 남습니다

03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AI의 판정을 숙련자의 판정과 나란히 비교하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AI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순서도 정해 두었습니다. 웨이스의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 **나란히 비교하기** — AI가 판정을 내리되 현장에는 개입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숙련자가 내린 판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 **권고하고 사람이 승인하기** — AI가 권고안을 내고, 사람이 승인한 것만 실행한다.
- **정해진 범위에서 맡기기** — 품질에 바로 닿는 공정부터 정해진 범위 안에서 AI에게 맡긴다. 이 단계는 앞으로의 단계다.

첫 단계에서 보는 것은 AI가 얼마나 그럴듯한 답을 내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숙련자와 AI의 판정이 어디서 같고 어디서 갈리는지를 봅니다. 이런 기록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발표가 아니라 기록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04

웨이스가 아직 갖추지 못한 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VEXPLOR를 적용하고 있는 프레스 공정 현장의 운영 로그는 아직 첫 집계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AI의 제안이 몇 번 승인됐고 몇 번 고쳐졌는지 같은 수치가 없습니다. 수치는 운전 로그가 쌓인 뒤 그 로그로 말할 일입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값을 바꾸며 남긴 사유가 어디에 몰리는지 늘 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사유를 고르는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만 계속 선택된다면 기록은 있어도 정보는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적은 사유, AI가 내놓은 근거, 권한 판정 이력을 하나의 결정 기록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 셋이 한 기록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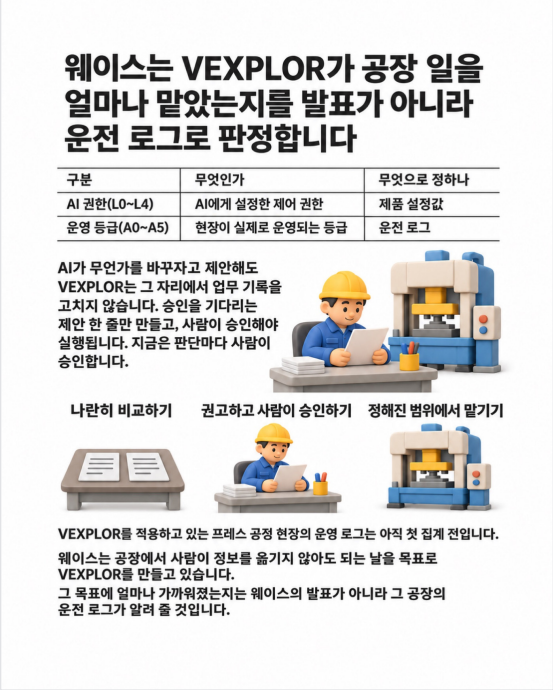
구분	지금	다음
AI 제안	승인 대기 한 줄	그대로
사유 분포	따로 보지 않음	늘 보이게
결정 기록	한 기록에 없음	하나로 모음

05

공장 AI가 맡은 일의 크기는 발표가 아니라 운전 로그가 정합니다

공장에 AI를 넣으면 가장 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설정값과 발표 자료입니다. 웨이스가 VEXPLOR에서 그 둘과 현장 기록을 나눠 두는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 **권한과 등급을 나눈다** — AI 권한은 설정값으로, 운영 등급은 운전 로그로 정한다.
- **제안과 실행을 나눈다** — AI의 제안은 승인 대기 한 줄로 남고, 사람이 승인해야 실행된다.
- **비교하고 넘어간다** — 다음 단계 전에 AI 판정을 숙련자 판정과 나란히 비교하는 순서를 정해 두었다.
- **수치는 로그가 쌓인 뒤에 말한다** — 운영 로그 첫 집계 전에는 성과 수치를 앞세우지 않는다.



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웨이스는 공장에서 사람이 정보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날을 목표로 VEXPLOR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웨이스의 발표가 아니라 그 공장의 운전 로그가 알려 줄 것입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6

함께 읽어보세요

- 공장은 AI 도입 효과를 경영진 발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이 AI 결과를 고친 횟수로 판정해야 한다
- 웨이스는 공장장이 AI 판단을 승인하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VEXPLOR에서 AI의 권한을 단계로 나눕니다
- 잭 도시가 AI 조직의 조건으로 내건 「회사 월드 모델」, 공장에서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원문 blog.vexplor.com/post/wace-vexplor-autonomy-level-from-operation-logs
발행 2026년 11월 28일 ·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WACE Inc.) · 대표이사 방동걸 · 사업자등록번호 439-87-02852
주소 (18462)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A동) 1702-1708호 (영천동, 실리콘앨리동탄)
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